

환경농업과 산림유기자원

(사)한국유기자원협회 김택열

본고는 지난 1. 12 농촌경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국산림유기자원에 대하여 본회 부회장 김택열씨가 주제발표한 내용임 - 편집인

■ 서설

• 농림업의 현실 진단

20세기를 지배했던 경쟁논리와 승자논리의 부산물인 환경문제가 이제 21세기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의 지배 논리로 자리매김이 될 것이며, 상당기간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바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이 농림업은 원천적으로 환경의 모체인 흙과 물과 공기의 융합산물이기 때문에 21세기 환경문제의 중심에 환경농업문제가 자리를 잡게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한 예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림업의 기능과 역할을 단순한 농산물이라는 경제적 물량적 평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포괄적인 공익적 평가를 함으로서 농림업의 위상제고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추세에 의한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기간 전에 몇몇 뜻있

는 분들이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깨닫고 계몽과 실천운동을 펴가면서 어려운 노력을 해왔으나 군사정부하의 강력한 증산정책에 억눌려 환경농업의 제기 자체가 반 국가적인 행위로 위협당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도 지금은 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13일에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고, 1998년 11월 11일을 기해서 환경농업원년의 해를 선포하였고, 1998년 12월 14일부터는 환경농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더욱 농림부에서는 1999년부터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지역특화사업의 일부이지만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을 신설하여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50%의 정액보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퇴비생산 우수마을 심사요령을 만들어 전국 각 시도에 퇴비증산 독려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친환경농업을 관민이 함께 육성하고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별화를 시행하며 급기야 CODEX(유기식품 국제기준) 기준까지 작성하여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다른분야에는 정부보조를 제한하고 감시하면서도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만은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전부가 환경농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농업실천목표는 지역의 특성과 지구촌 전체의 환경변화와의 상관관계속에서 설정되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의 상황과 예상되는 미래에 대비하는 단계적 목표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은 어디까지나 환경농업실천의지가 심도있게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고 하겠습니다.

■ 환경농업의 실천과제

환경농업실천의 축을 소비자측의 실천과 생산자측의 실천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으며 저는 오늘 생산자측의 실천과제를 불란서의 Jesn Pain 농법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적인 토양 관리

- 장 뻥(Jean Pain)의 충고

환경농업실천의 모델을 전 세계에 심어놓은 장뻥(Jean Pain)도 토양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부식질을 토양에 넣어주어야 하며, 이것은 토양관리의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또 식물체가 병에 걸렸을 때 원인이 양분결핍이건 병균의 침입이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에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화학물질, 농자재, 농업기계등 현대농업의 기술적 발달과 정부의 고투입 농법이 맞물려 농업생산의 편의성과 생산성에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 결과 토양은 심하게 오염되었으며, 유기물 함량은 극도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유기질퇴비를 토양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태적 개선을 하는 일이 생산자측에서 해야할 환경농업실천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토양의 오염문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지력회복은 가능하고 어렵지 않지만 오염된 토양은 오염의 정도와 오염의 원인별 형태에 따라서 오염된 토양을 회복시키는 비용이나 방법은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토양오염은 토양에 대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불량퇴비에 의한 토양오염은 정부, 시민단체, 농민 모두가 함께 사전에 강력하게 막아야 할

사항입니다.

• 산림유기자원과 퇴비증산

장뽕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양질의(High Quality) 풍부한(Large Quantity)퇴비를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장뽕의 방식(Jean Pain Method)

저는 농림부에서 발간한 친환경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책자에 소개된 장뽕「또다른 형태의 정원」(the another kind of garden)을 읽고 환경농업과 산림유기자원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 책속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지난 1999년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벨지움 부루셀에서 20km쯤 떨어진 룬데르질(Londerzeel)에 있는 장뽕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장뽕위원회는 유럽자치구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벨기에인 프레드릭 반데 브란데(Fredrik VANDEN BRANDE)가 장뽕의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1978년에 조직한 국제장뽕위원회의 시험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농민, 환경전문가들에게 나뭇가지를 잘게 파쇄하는 방법과 그것으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세계각지의 대학, 연구소와 깊고 폭넓은 유대를 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 한국산림유기자원 협회와도 업

무협조 및 정보교환등 상호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며 제가 귀국한 뒤에도 많은 자료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장뽕위원회에서 반데 브란데 위원장으로부터 2일간 직접 현장 교육을 받으면서 톨스토이의 마지막 비서였던 Victor가 장뽕의 발견을 불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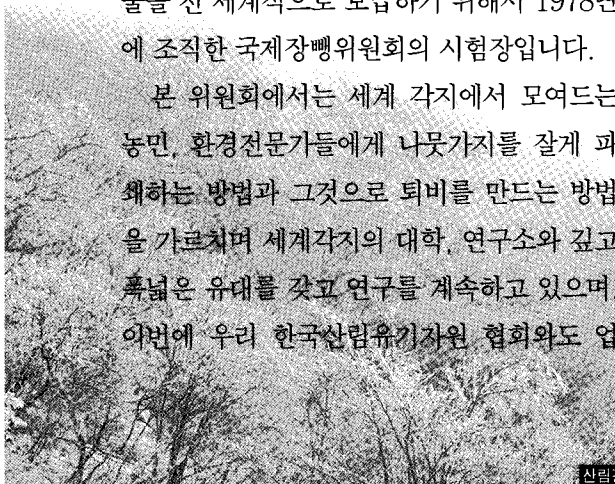
장뽕위원회의 시험장에는 나뭇가지를 실은 트럭으로부터 자동차 트렁크에 소량의 정원 전지 부스러기까지 싣고 와서 부리고 가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온 나뭇가지를 그곳에 있는 파쇄기로 파쇄를 해서 일부를 자루에 담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인근 모든 주민이 나뭇가지등 모든 녹색유기자원을 한데 모아서 퇴비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은 꺾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1980년 1월 장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나뭇가지 수집운동을 전개 하였는데 1년만에 전국 600개 자치구 가운데 200개 구가 이 운동에 참여 하였다고 합니다.

• 퇴비증산의 한국형 모델

한국의 산림유기자원(forestal biomass)을 활용한 퇴비증산의 방법을 제나라름대로 구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가지 부연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풍부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을 외국의 어느나라보다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 산림유기자원의 활용 여건

- 한국은 산림유기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이다.
 - 국토의 65%가 임야라는 점
 - 전체 산림이 모두 숲 가꾸기 대상지역이라는 점
 - IMF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 가장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부 지원 의지가 확실한 점
 -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산림훼손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 우리 농촌은 구조적으로 집단 주거 취락형이며 농지가 소규모이면서 같은 지역이지만 분산되어 있고, 거의 모든 마을 주변에 산림이 있다.
- 우리 농촌은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특히 거의 친인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문화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 산림유기퇴비 생산모델
(소농민집단 현지생산, 현지활용 모델)

모델 I

- 실천주체 : 마을 또는 작목반
- 실천방법 : 산림유기자원의 공동수집, 공동생산, 공동저장, 공동배분, 공동판매
- 기대효과 : 직접효과 - 저렴한 생산비(물류

비 절감)

- 양질의 퇴비생산
 - 간접효과 - 공동체 의식의 함양, 농민기 유희노동력의 최대 활용
 - 농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
- ※ 이 모델은 경상북도 봉화군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파급되고 있음.

모델 II

- 실천주체 : 농협, 임협의 단위조합, 농촌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 실천방법 : 모델(I)과 동일(대농민 환원 사업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직접효과 - 장비의 집중관리로 장비활용의 효율성 극대화
 - 생산비 절감
 - 간접효과 - 농민과 관 및 기관과의 협조 이해 및 유대강화
- ※ 이 모델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 정책건의

1.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의 독립 예산항목 설정
앞에서 언급된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

서에 보면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이 지역 특화사업지원 18개 세부사업중의 하나이므로 농민의 신청과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축소내지는 반영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즉,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은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설정하여 선택적 예산 항목이 아닌 고유 시행 예산 항목으로 바꾸어야 함.

2. 산림유기자원 활용의 의무화 정책 개발

-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시 별채된 임목의 수집장소 기재 의무화
- 임목별채 허가나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시 별채된 임목의 임도변이나 차량출입 가능지에 집재를 의무화

3. 마을단위 공동퇴비장 설치 권장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퇴비생산은 물류비 과부하 현상을 배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생산 시설이 넘비현상의 대상인 공장 형태가 아님.

<축분퇴비 공장이나 몇몇 대형 톱밥 공장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음.>

4. 산림유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전문 연구 체계 확립

농경연, 농진청, 임업연구원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사업의 추진과 유기적인 연구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5.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정책 홍보 강화

중앙 정부의 정책이나 시달내용을 일반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보다도 숙지하지 못하거나, 같은 내용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으로 정책내용과 시행방법을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

<외국의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시민에게 관련된 모든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민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선택 가능한 정책을 선택 활용함.>

6. 산림유기퇴비 생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전개

환경농업의 정착과 산림유기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지속적 농업 생산활동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국민적 과제이며, 전체 국민의 참여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조직적 연대를 전제로한 범국민적 사회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가 통치의 기본이념이듯이 환경농업의 정착도 통치이념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새천년의 신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음. 현재 산림유기자원협회, 농협중앙회, 경실련등은 이를 위한 협의의 모임을 갖고,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음.>